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

리더십: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선교 활동 보고

### 은퇴를 향한 여정 살펴보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성령을 통해 주신 다양한 능력들에 대해 언급했을 때, 페기 크롱 목사는 재정 전문가로서의 은사를 놓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페기 목사는 50 년 이상을 장로교인으로서 활동하며 언제나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을 인식해 왔습니다. 신학교에 가고 사역자가 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그녀 주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조언했습니다. 재정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1992 년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1996 년에 학위를 받고 안수를 받은 후에, 그녀는 샌안토니오에 있는 홀리 트리니티 장로교회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웨스트우드 장로교회를 섬겼습니다. 모두 합쳐 거의 16 년 동안 사역한 후에 그녀는 2012 년에 은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경력을 바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로 한 결정은 그녀에게 은퇴를 위한 자금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던 크롱 목사는 다행스럽게도 연금국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녀는 현재 살고 있는 은퇴자 공동주택 지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며 매달 불입해야 하는 거주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페기 목사가 받은 이 보조금은 '지원 프로그램'과 소수 인종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장로교 산하 학교 및 대학에 균등하게 분배되는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현직에 있거나 은퇴한 플랜 회원과 그 가족에게 어려운 시기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미국장로교 사역에 헌신한 삶 자체가 이타심과 관대함입니다"라고 연금국 회원 서비스 디렉터인 루카스 맥쿨은 말했습니다. "페기 목사님은 그 모든 것보다도, 때로는 그녀 자신보다도 더 공동체를 귀하게 섬기기 위해 자신의 은사를 드렸기에, 저는 그녀가 어려울 때에 저희에게 지원을 요청한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우리 모두는 또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폐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연금국과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 덕에, 저는 이런 도움이 없었다면 하지 못했을 것보다도 더 많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전현직, 그리고 미래의 지도자들을 높이고 섬깁니다. 우리의 헌금은 희망과 안정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헌금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조금씩 기부하면, 큰 기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굿명할습닛.**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모든 시대에 걸쳐 또 모든 지역에서 당신의 교회를 섬긴 이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과 함께 하소서. 특별히 그들이 진정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지원과 돌봄을 그들이 인식하게 하시며 그들의 사역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방법들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